

참좋은우리절, 베트남 효법회 봉행

8월 18일, 한국거주 베트남 불자 동참

전주 참좋은우리절(주지 회일)이 백중을 맞아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 불자들을 위한 효법회를 봉행했다.

8월 19일 참좋은우리절 큰법당에서 열린 효법회는 베트남 홍법사 스님들과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출신 결혼이주여성, 노동자, 유학생 등 베트남 불자 200여 명이 동참했다. 베트남 불자들은 전통 베트남 악기의 연주를 들으며, 고국의 부모님을 위해 꽃과 공양물을 스님들과 부처님전에 올리며 그리운 마음을 대신했다.

참좋은우리절 총무 석현 스님은 "참좋은우리절은 베트남 닥락성에 한글학교를 개설하는 등 한국과 베트남의 문화 우호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라는 뜻은 한국과 베트남도 아닌 우리 모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베트남 불자들도 항상 절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수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에 거주한지 16년째인 김혜영(전주 덕진구) 씨는 "베트남에 계신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다"며 "백중을 맞아 스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꽃을 올려드렸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대구불교대학 동문회장에 박순선 씨

8월 18일 총회서 선임… "매사 앞장"

대구불교대학 총동문회는 8월 18일 동화사 통일기원대전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신임회장으로 박순선 씨를 선출했다. 박순선 신임회장은 "대구불교대학 총동문회는 사랑하는 마음을 나누고 화합과 소통으로 협력하며 더 나은 동문회로 변모하고 있다. 동문 선후배가 서로 존경하고 아끼는 마음을 보여주고 물러나는 일 없이 매사에 앞장서도록 이끌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팔공총림 동화사 주지 효광 스님은 대구불교대학 동문들에게 "여러분이 총회에 임하는 방하의 마음은 진리를 대하는 아름답고도 성숙한 마음의 첫걸음"이라며 "상생과 화합의 정신으로 하나가 되고, 도도한 수행의 길로 나가 오늘의 모습이 새로운 진리의 세계로 가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총회에는 팔공총림 동화사 주지 효광 스님과 국장 소임 스님들을 비롯해 김한기 총동문회 제1대 회장 등 역대 회장단, 동문 300여 명이 참석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불교예술 영산재로 순국선열 깊이 추모"

Interview

태고종 전국비구니회장 현중 스님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9월 3일 서울 서대문독립공원서
순국선열 · 애국지사 추모위령재
독립운동가 후손 토크 콘서트도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아주 뜻 깊은 해입니다. 이렇게 기념적인 해에 태고종 비구니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 순국선열을 기리는 추모위령재를 준비했습니다. 불교예술인 영산재를 중심으로 선조들의 애국정신을 온 국민이 되새기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태고종 전국비구니회가 순국선열과 애국열사를 추모하는 대규모의 위령재를 9월 3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독립공원 내 순국선열추념탑 앞에서 봉행한다. 태고종 전국비구니회장 현중 스님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올해 독립운동에 앞장선 스님을 비롯한 애국열사들의 애국정신을 알리고자 이 같은 행사를 마련했다. 무엇보다 독립운동 특성상 역사에 이름을 남기지 못해 애국열사로 불리지 못하는 선조들의 넋을 위로하는 데 무게를 뒀다.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땀을 흘렸습니다. 청소년부터 노인까지, 일반인부터 종교인까지 말이죠. 특히 스님들을 중심으로 전개된 독립운동은 그 가치가 대단하지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후손인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다 선조들의 넋을 기리고, 역사적 중요성을 알리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위령재가 봉행되는 순국선열추념탑은 조국 광복을 위해 일제에 항거하다 순국한 선열들의 얼을 되새기고, 원혼을 추모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1992년 8월 15일 건립한 독립운동의 상징이다. 높이 22.3m, 좌우 40m 길이의 추념탑 앞에서 불교예술이자 의식의 중심으로 평가되는 영산재가 펼쳐진다는 점은 주목받을 만하다.

태고종 전국비구니회는 행사에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영산재를 주 무대로 꾸미고, 순국선열 후손과의 토크 콘서트, 판소리 전통공연, 뮤지칼 갈라쇼 등 다양한 공연을 대중에 선보일 계획이다. 특히 영산재 이수자와 전수자 비구니스님 50여 명이 무대를 장엄하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이상룡 선생의 증손자 이항증 씨와의 대화마당도 펼쳐진다.

"영산재는 부처님 당시 영축산에서 행하던 재의식입니다. 영령을 위로하는 것이죠. 조국을 위해 몸 바쳐 싸우다 돌아가신 선조들을 위로하는 데 영산재만한 것이 없습니다. 또한 단순히 선열을 기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후손들이 애국정신을 깊이 새겨 살아갈 수 있도록 감동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날 행사 시작에 앞서 가사와 장삼을 수한 스님 100여 명이 묵언을 하며 순국선열들의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는 퍼포먼스는 장관을 연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뿐만 아니라 부대행사로 다도, 캘리그라피, 캐리커쳐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체험부스도 운영돼 가족단위의 관심도 이끌어낼 계획이다.

수행체험에 담긴 韓中불교 유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초청에
中불교협회 수행체험 방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원행, 조계종 총무원장)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중국불교협회 국제포교사스님들이 김제 금산사에서 한국불교문화를 체험했다. 8월 20일부터 27일까지 국내에서 수행체험을 한 중국수행단은 북경, 감숙성, 안휘성, 섬서성, 호북성 등 5개성 39명의 스님으로 구성됐다.

가장 먼저 중국수행단은 금산사 방등계단과 5층석탑, 미륵전을 돌아보며 문화해설사로부터 금산사의 역사와 한국불교를 이해하는 시간을 보냈다. 또 예불, 참선 등 수행체험과 탁본체험 등의 문화체험도 함께 진행됐다.

금산사 보제루에서 봉행된 입제식에서 금산사 부주지 일원 스님은 "한국과 중국 불교계가 힘을 합쳐 세계에 불교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 금산사를 방문한 중국수행단이 미륵전 앞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 지민 스님은 "한국과 중국의 수행교류는 서로에 대한 이해를 통해 양국의 문화적인 측면과 수행을 동시에 보여줄 정도로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게 됐다"며 "길지 않은 여정이지만 많은 것을 체험하고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수행자이자 전법사로 원만회향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국수행단장 북경 영광사 주지 상장 스님은 "전라북도의 유명 불교성지인 금산사에서 수행체험을 통해 한국불교의 역사와 모습을 보고 양국불교의 깊은 위의를 느끼게 됐다"며 "제11차 한중불교체험 행사를 통해 양국의 불교가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중국불교수행단은 한국에 머무는 동안 익산 미륵사지, 화엄사, 법주사, 천태종 관문사, 진각종 통리원 등을 순례하며 한국불교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원당암 우란분절 천도법회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 법사로



해인사 원당암은 8월 15일 우란분절을 맞아 해인총림 방장 원각 스님이 법사로 참석한 가운데 선망부모, 조상영가 합동천도법회를 개최했다. 방장 원각 스님은 "하안거 해제일에 참회의 시간을 갖고, 자기주장을 내려놓는다면 세상의 모든 갈등이 없어진다"며 "자기욕심을 버리는 마음자리가 깨달음의 길이니 동체대비사상으로 살아가길 바란다"고 법문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보현사 독립운동기념판 제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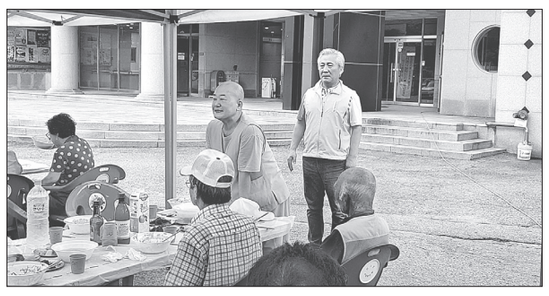
동화사 지방학림 스님들 역할 알리고자



조계종 동화사 포교당 보현사(주지 지우)는 8월 14일 3.1독립운동 100주년 기념을 위한 독립운동기념판(스토리보드) 제막식을 개최했다. 보현사 주지 자우 스님은 "동화사 지방학림 스님들은 보현사에 모여 태극기를 만들고 만세운동을 전개했다"며 "이 같은 스님들의 독립운동정신을 후세에 널리 알려 기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어르신 무더위 이겨내시길"

진안 쌍봉사, 성수면서 찾아가는 마을밥상



진안 쌍봉사(주지 보경)는 8월 21일 성수면 주민센터를 찾아 '8월 찾아가는 마을밥상' 봉사활동을 펼쳤다. 쌍봉사 섬김봉사단은 지역 어르신 80여 명을 초청해 팥 칼국수, 순대, 과일 화채, 음료수, 막걸리 등 정성이 담긴 음식을 대접했다. 보경 스님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이 무더위를 이겨내는데 도움이 됐으면면 좋겠다"고 인사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육임 수강생 모집

지금까지의 육임과 다른
새로운 육임을 동방대학원대학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2학기 수강생 모집

교재	e-book
문의	02)3668-9890, 9871
수강료	50만원
	www.dongbang.ac.kr

특별 이벤트

공념학당 6개월 수강 + e-book (30만원) + 동방대학 수강

일백만원 (대할인 수강생 모집 중)

공념학당 | Tel 02-793-7333

신화불사

매물안내

법당	3포 27평(서울)	3,000만원
종각	육모정 8자칸(서울)	1,200만원
사주문	5포. 전면 11자. 측면 10자(서울)	800만원
요사채	ㄱ자. 33평(서울)	3,300만원
대중간	45평(서울)	4,500만원
한옥	ㄱ자. 33평. 재부(서울)	1억 2천(신재)
사찰	문화재 보유 / 1120평(경기)	35억
사찰	문화재 보유 / 1200평(서울)	80억

☎ 010-6545-2020

www.dongsanbud.net



2019년 55기 동산불교대학 신입생모집[2년과정]

■ 불교학과 9월 5일(목) 오후 2시 개강
▶주간반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저녁반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통신반 CD 배송 사이버강좌 http://cyber.dongsanbud.net

1년차	과목	1. 대승불교 2. 정토불교 3. 화엄경 4. 불교의 체계적 이해 (아함경 1), 5 불교문화 6. 선불교
	교수진	법산 경일스님(학장) 최봉수교수 정성준교수 이미령교수 정엄스님 윤열수교수 법인스님 활안스님 김호귀교수
2년차	과목	7. 근본불교 (아함경 2) 8. 반야사상 9. 유식사상 10. 인도불교 11. 중국·한국불교 12. 법화경
	교수진	최봉수교수 이미령교수 묘주스님 정성준교수 황순일교수 김경집교수 김상영교수 차차석교수

■ **모집인원**(불교학과) : 100명 (주간반, 저녁반, 통신반 각 30명)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입학금 20만원
■ **원서교부 및 접수** : 2019년 8월 1일부터 ■ **문의** : (02) 732-1206~8
※상기 과정을 졸업한 후 한국불교교육단체(한불련) 연합회포교사 고시를 거쳐 포교사 자격을 획득함

학과별 개강	• 불교다도학과 9월 3일(화)오후 2시 • 불교미술학과 9월 5일(목) 오전 10시 30분 / 3년과정	
	• 전통범패의식반 9월 4일(수)오후2시 • 한글불교의식반 9월 7일(토) 오후 2시, 4시	
대학원	불교학과 (화) : 화엄경 (2) : 정엄스님	9월 3일(화) 오후 7시
	불교학과 (화) : 보살사상과 관세음보살 : 이미령교수	9월 3일(화) 오후 8시 20분
	불교학과 (목) : 디가니까야 (장아함경) : 최봉수교수	9월 5일(목) 오전 11시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불교대학·대학원
사무처 : (우)03150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1 동산불교회관
TEL 02)732-1206~8, FAX 02)732-1207 www.dongsanbud.net